

이방인 (알베르 까뮈)

옛날 옛적에, 모래가 가득한 바닷가 마을에 '메르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메르소는 조용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메르소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메르소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메르소는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했답니다.

그 후로 메르소는 친구들과 지내며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사고가 벌어졌어요. 메르소는 우연히 한 남자를 상하게 했고, 그 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메르소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메르소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을까?" 메르소는 자신이 느끼는 것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마침내, 메르소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메르소의 이야기입니다.

##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토스토예프스키)

옛날 옛적,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카라마조프'라는 이름의 한 가족이 살았어요. 이 가족에는 아버지와 세 형제가 있었답니다. 아버지 '표도르'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세 형제는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이었어요.

큰 형 '드미트리'는 용감하고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다혈질로 쉽게 화를 내곤 했어요. 둘째 형 '이반'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큰 질문이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곤 했지요. 막내 '알료샤'는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는 믿음이 깊어, 신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형제들의 아버지인 표도르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해 목숨을 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형제들은 모두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형 드미트리가 화가 나서 아버지를 해친 것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드미트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편, 이반은 이 사건을 통해 세상과 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신을 믿지 않 으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 자꾸만 생각했답니다. 막내 알료샤는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풀고자 애썼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의 큰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며,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에 대해 배우는 여정이에요. 이들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족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세 형제가 인생의 큰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 부활 (톨스토이)

옛날 옛적, 러시아의 큰 도시에 '넬류도프'라는 귀족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넬류도프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곤 했어요.

어릴 적, 넬류도프는 농장에서 일하던 '카추샤'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어요. 카추샤는 친절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처럼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넬류도프는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카추샤와의 인연도 서서히 멀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넬류도프는 법정에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바로 카추샤였던 거예요! 카추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었답니다. 넬류도프는 그녀를 알아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카추샤에게 잘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넬류도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는 카추샤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그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원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카추샤의 삶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넬류도프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카추샤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후 넬류도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버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부활은 네흘류도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변신 (프란츠 카프카)

옛날 옛적, '그레고르 잠자'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레고르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답니다. 그의 가족은 그레고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레고르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그레고르는 자신이 벌레가 된 이유도 모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그레타'는 그레고르를 무서워했고,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레고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졌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가족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고르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지만, 벌레가 된 자신은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꼈답니다. 그레타는 처음에는 오빠를 돌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모습을 참기 어려워했어요.

마침내, 그레고르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그는 조용히 방에서 사라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벌레로 변해 버린 그레고르가 가족과 멀어지는 과정을 그린 슬픈 이야기예요. 변신은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어린왕자 (텍쥐페리)

어느 날,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별에서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별은 매우 작아서,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혼자 장미 한 송이와 함께 지냈어요. 그 장미는 아주 아름다웠지만,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끔씩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 별들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은 혼자 살면서 누구에게도 명령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런 명령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만을 원했어요.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났는데, 그는 술을 마시는 이유를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별을 여행한 후,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지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났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사막에서 여우를 만났을 때였어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와 내가 친구가 되려면, 서로를 길들여야 해,"라고 여우는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여우는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여우는 친구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사랑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떠나온 별에 있는 장미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장미는 수많은 꽃들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어린 왕자가 길들인 장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결국 어린 왕자는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장미에게 돌아가서 다시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떠나기 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어린 왕자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와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백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옛날 옛적, 마콘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세계와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마을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마을에는 '부엔디아'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가면서 많은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이야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내, 우르술라 이구아란에서 시작돼요. 그들은 마콘도 마을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호세 아르카디오는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세상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했지요.

부엔디아 가족은 많은 자녀와 손주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족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몇몇은 사랑에 빠져 행복해 보였지만, 결국 외로움에 빠지거나 자신만의 세상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엔디아 가족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은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엇갈리곤 했어요. 그리고 부엔디아 가족의 이야기가 마치 마을의 운명처럼 반복되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을에는 한때 비가 계속 내리기도 했고, 또 때로는 마을 전체가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콘도 마을과 부엔디아 가족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고, 부엔디아 가족의 마지막 사람도 그 고독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부엔디아 가족이 세상과 자신 안에서 외로움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족과 사랑이 중요한 만큼,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줘요. 그리고 마콘도 마을처럼,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신곡 (단테)

옛날 옛적, 이탈리아에 '단테'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단테는 길을 잃고 어두운 숲 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 두려웠지만, 그때 갑자기 '베르길리우스'라는 현명한 시인이 나타났어요.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나와 함께 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그를 특별한 여행으로 이끌었어요.

단테가 따라간 곳은 무려 저승, 즉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답니다: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 1. 지옥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먼저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지옥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여러 층이 있었고, 각 층마다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각자의 벌을 받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갇혀 있거나,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있었어요. 단테는 이곳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 2. 연옥

다음으로 단테는 연옥에 도착했어요. 연옥은 지옥처럼 끔찍한 벌을 받지 않지만,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연옥의 사람들은 천천히 높은 산을 올라가며 자신의 죄를 씻고 있었고, 정상에 도착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단테는 이곳에서 용서와 참회의 중요성을 배웠답니다.

### 3. 천국

마지막으로 단테는 천국에 도착했어요. 천국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단테는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단테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단테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단테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마침내 단테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삶과 죽음, 선과 악, 그리고 사랑과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고, 이 모든 경험을 시로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신곡은 단테가 저승을 여행하며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옛날 옛적, 바다 가까이에 사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혼자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산티아고는 운이 좋지 않았어요.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곁에는 '마놀린'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산티아고를 존경하며 항상 그를 도와주고 싶어했어요.

어느 날, 산티아고는 다시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번에는 꼭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산티아고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 깊은 곳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주 크고 강한 물고기, '청새치'가 그의 낚싯줄을 물었어요. 그 물고기는 너무나도 커서 산티아고는 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는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며칠 밤낮을 계속 싸워야 했답니다.

산티아고는 지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힘을 다해 버티는 동안에도 끈질기게 낚싯줄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긴 싸움 끝에 산티아고는 그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물고기는 그의 배만큼이나 커다랗고 아름다웠답니다. 산티아고는 그 물고기를 배에 묶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다의 상어들이 산티아고의 청새치를 보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산티아고는 상어들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상어들은 계속해서 청새치를 갉아먹었어요. 산티아고는 마지막까지 상어들과 싸웠지만, 결국 청새치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어요. 그의 배에 남은 것은 물고기의 뼈뿐이었죠.

산티아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티아고가 잡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소년 마놀린도 다시 산티아고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놀린은 산티아고에게 "다음엔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며 산티아고를 위로했어요. 비록 청새치를 온전히 가져오진 못했지만, 산티아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자신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싸우며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옛날 옛적, 스페인에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돈키호테는 책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용감한 기사들이 악당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도 그런 용감한 기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돈키호테는 진짜 기사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오래된 갑옷을 꺼내 입고, 낡은 말을 타고, 머릿속으로 자신을 '라만차의 기사'라 부르며 모험을 떠났어요. 그의 충실한 친구이자 하인인 '산초 판사'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를 돕기 위해 모험에 동행했어요.

돈키호테는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거대한 풍차를 보고는 그것을 '거대한 괴물'로 착각하고 싸우러 갔어요. "저 거대한 괴물을 물리칠 거야!"라며 돈키호테는 용감하게 풍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풍차의 날개에 휘말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산초는 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돈키호테는 자신이 정말 괴물과 싸운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후에도 돈키호테는 많은 모험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여관을 보고 그것을 성이라고 생각하거나, 평범한 양떼를 보고 적군이라고 착각하며 달려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의 모험은 항상 엉뚱하고 이상한 일로 끝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자신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키호테의 모험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산초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친구로서 지켜주었어요. 산초는 돈키호테가 헛된 꿈을 꾸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의 진심을 존중했기 때문에 함께 모험을 계속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키호테는 자신이 상상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용감한 기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용기와 선한 마음은 여전히 산초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어요.

돈키호테는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엉뚱한 기사 돈키호테와 그의 충실한 친구 산초 판사의 모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꿈을 꾸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호밀밭의 파수꾼 (J.D. 셀린저)

옛날 옛적, '홀든 콜필드'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어요. 홀든은 16살이었고, 아주 큰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전부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홀든은 학교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답니다.

홀든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큰 도시에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는 여러 장소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이상하거나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홀든은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외로워졌어요.

홀든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어린 여동생 '피비'였죠. 피비는 언제나 밝고 똑똑하며, 홀든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는 소녀였어요. 홀든은 피비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어요. 피비는 홀든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홀든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피비에게 말해 주었어요. "나는 커다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실수로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그 아이들을 잡아주고 싶어.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 거지." 이 말은 홀든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홀든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이 가식적일 수 있으며, 홀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죠. 결국 홀든은 피비의 따뜻한 말과 사랑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은 홀든이라는 소년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겪는 방황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순수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옛날 옛적, 프랑스라는 나라에 '장 발장'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장 발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사회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고, 장 발장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장 발장은 한 마을의 교회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그곳의 신부님은 장 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장 발장은 교회에서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이 그를 붙잡아 신부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때 신부님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은식기는 내가 장 발장에게 준 것이 맞다네. 그리고 이 촛대도 가져가게나." 신부님의 용서와 선의에 감동한 장 발장은 그날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장 발장은 다른 마을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어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장 발장은 여전히 과거의 죄 때문에 자신을 쫓아다니는 경찰 '자베르'를 피해 다녀야 했어요. 자베르는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 발장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한편, 장 발장은 '판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판틴은 가난 때문에 딸 '코제트'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장 발장은 판틴이 죽기 전에 그녀의 딸 코제트를 찾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는 코제트를 찾아내어 데려왔고, 코제트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어요. 코제트는 장 발장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행복하게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자베르의 추적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장 발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파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장 발장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결국 장 발장은 자베르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자베르의 생명을 구해 주었어요. 그

순간, 자베르는 장 발장이 자신이 생각했던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장 발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코제트와 그녀의 연인 '마리우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레 미제라블은 장 발장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선의를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용서, 사랑, 그리고 인간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 적과 흑 (스탕달)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쥘리앵 소렐'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쥘리앵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똑똑하고 야망이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쥘리앵은 두 가지 색을 상징했어요. 적색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냈고, 흑색은 성직자의 삶을 의미했어요. 쥘리앵은 처음에는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성직자가 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직자로서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쥘리앵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마을의 부자인 '드 레날' 시장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시장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시장의 아내 '마틸드'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쥘리앵과 마틸드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싹텄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문제가 되었고, 쥘리앵은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 후 쥘리앵은 파리로 가서 또 다른 상류층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갈등이 있었어요. 쥘리앵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결국, 쥘리앵은 자신의 야망과 사랑,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쥘리엥은 자신의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적과 흑은 야망을 가진 청년 쥘리엥이 성공을 추구하며 겪는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공을 향한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사랑과 진실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 양철북 (권터 그라스)

옛날 옛적, '오스카 마체라트'라는 이름의 작은 소년이 독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오스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세 살이 되었을 때, 세상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겠어!"라고 결심했답니다. 그 후로 오스카는 자라지 않고, 항상 세 살짜리 아이의 몸으로 살게 되었어요.

오스카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양철북이었죠. 이 양철북은 오스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었어요. 그는 항상 이 북을 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오스카는 자신의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있었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유리창을 깨뜨릴 수도 있었어요!

오스카는 양철북을 치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오스카는 자신이 자라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어른들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때문이었어요. 그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스카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양철북을 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양철북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저항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었답니다. 오스카는 양철북을 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 오스카는 자신이 세상 속에서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어른들의 세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오스카는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양철북은 세상과 어른들의 세계에 저항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오스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장과 저항,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 주고 있어요. 오스카는 양철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맞서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답니다.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옛날 옛적, 러시아의 큰 도시에서 '유리 지바고'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유리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아주 슬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고,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는 커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유리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토냐'라는 사랑스러운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러시아에는 큰 전쟁과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유리도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전쟁 중, 유리는 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며 '라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라라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리와 라라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유리에게는 이미 아내인 토냐가 있었고, 라라 역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와 라라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유리는 전쟁과 혁명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자신의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유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는 여러 차례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꼈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지만, 유리의 삶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는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닥터 지바고는 전쟁과 혁명 속에서 사랑, 갈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유리 지바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 줍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옛날 옛적, 미국 남부의 아름다운 땅에는 '스칼렛 오하라'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스칼렛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남부의 넓은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소녀였답니다.

스칼렛은 '애슐리'라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애슐리는 온화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스칼렛의 마음과는 달리 애슐리는 다른 여자 '멜라니'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어요. 스칼렛은 그 사실에 슬퍼하며, 어떻게든 애슐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은 남북전쟁이라고 불리며, 북쪽과 남쪽이 서로 싸우게 된 것이었어요. 전쟁은 스칼렛이 살던 고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남부의 농장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스칼렛도 이제는 부유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없었고,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스칼렛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남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스칼렛은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레트는 똑똑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칼렛과는 언제나 부딪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트는 스칼렛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스칼렛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레트와 결혼했지만, 스칼렛은 여전히 애슐리를 잊지 못했고, 그로 인해 레트와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결국 레트는 스칼렛에게 떠나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스칼렛은 그제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레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스칼렛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다시 결심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스칼렛은 힘들고 슬픈 일이 많았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강하게 살아가려는 스칼렛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 고난,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스칼렛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동물 농장 (조지 오웰)

어느 날, 한 농장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동물들은 사람 주인인 '존스 씨'를 농장에서 쫓아내고, 이제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농장의 이름은 동물 농장으로 바뀌었어요.

동물들의 리더는 똑똑한 돼지들이었어요. 특히 두 마리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이 동물들을 이끌었어요. 이들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세우며, 모두가 힘을 합쳐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 규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농장을 잘 운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했고, 스노볼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결국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농장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농장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자신과 다른 돼지들을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규칙을 믿었지만, 나폴레옹과 돼지들이 점점 더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나폴레옹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자신은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돼지들은 사람들처럼 두 발로 서서 다니기 시작했고, 인간들과 거래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동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동물들이 처음 세웠던 규칙 중 하나였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규칙도 바뀌었어요. 이제 그 규칙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돼지들은 점점 더 사람처럼 행동하며, 나머지 동물들을 지배하게 되었답니다.

동물 농장은 처음에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욕심 때문에 그 꿈이 변질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사람들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결국 자신들의 농장이 원래 꿈꾸던 것과는 다르게 변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 달과 6펜스 (서머셋 몸)

옛날 옛적,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어요. 찰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찰스는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꿈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꿈은 바로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찰스는 자신의 가족, 직장, 그리고 안정된 삶을 모두 버리고, 혼자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찰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찰스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을 추구하고 싶었답니다.

찰스는 돈이 없었지만, 굶주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의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찰스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찰스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찰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답니다.

찰스는 마치 달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갔어요. 달은 멀리 떨어져 있어 닿을 수 없지만, 그는 그 달을 향해 계속 손을 뻗었어요. 반면, 많은 사람들은 발밑에 있는 6펜스라는 작은 동전, 즉 돈과 일상의 안정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찰스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꿈과 예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찰스는 결국 남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떠나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평화와 자유를 찾았답니다. 찰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달과 6펜스는 평범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예술과 꿈을 찾아 떠난 찰스 스트릭랜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찰스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안정이나 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았고, 비록 이해받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옛날 옛적,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느 날 길가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제 고도가 올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친구는 고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배고프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두 친구는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포조'라는 남자와 그의 하인 '럭키'가 그들 앞을 지나갔어요. 포조는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고, 럭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다니며 명령을 따르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포조와 럭키를 잠시 만났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고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포조와 럭키가 떠난 뒤 다시 고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밤이 되었지만, 고도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는 내일 올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다음 날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며 고도를 기다렸어요.

고도를 기다리며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름도 잘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두 친구가 끝없이 기다리지만, 고도가 결국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다림'이라는 주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또는 올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 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

옛날 옛적,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도시에는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블룸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하루는 아주 특별한 모험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블룸이 하루 동안 겪는 다양한 일들과 그의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이날 아침, 블룸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며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시장을 가고, 신문사를 들르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하지만 블룸은 단순히 걸어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주치는 것들에 대해 상상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어요.

한편, 블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스티븐 데달러스'라는 젊은 청년도 만났는데, 스티븐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예술가였어요. 스티븐도 블룸처럼 생각이 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블룸이 하루 동안 겪는 일들은 모두 아주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통해 그 일상적인 순간들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 나갔어요. 블룸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 삶과 인간 관계, 사랑,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하루는 마치 오랜 여행처럼 느껴졌답니다.

율리시즈는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평범한 남자가 하루 동안 겪는 일들을 다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블룸의 하루는 마치 모험과 같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과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 인생의 큰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옛날 옛적, 덴마크라는 나라에 '햄릿'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햄릿은 왕이었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햄릿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와 결혼했답니다. 햄릿은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햄릿은 성벽 위에서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령은 자신이 죽은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클로디어스가 독을 써서 자신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령은 햄릿에게 복수를 부탁하며, 클로디어스가 저지른 나쁜 일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햄릿은 복수를 다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정말로 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중 하나는, 배우들을 불러서 연극을 상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연극은 클로디어스가 아버지를 죽인 방법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연극을 보던 클로디어스는 깜짝 놀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햄릿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햄릿은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을 겪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복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햄릿의 복수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어요. 결국 햄릿과 클로디어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큰 불행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햄릿 역시 싸움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클로디어스의 나쁜 일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복수를 이룰 수 있었어요.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복수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을 보여줍니다. 햄릿은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갈등과 슬픔을 겪으며 결국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와 정의,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머니 (막심 고리키)

옛날 옛적,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펠라게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펠라게야는 '파벨'이라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펠라게야는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언제나 아들을 사랑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파벨은 어른이 되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파벨은 세상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파벨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

펠라게야는 처음에는 파벨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들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정부와 경찰의 눈에 띄는 일을 하려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파벨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진심과 그의 믿음을 보고, 펠라게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며, 자신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답니다.

펠라게야는 파벨과 그의 친구들이 몰래 나눠주던 전단지를 숨기고, 경찰의 눈을 피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펠라게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파벨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파벨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펠라게야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며 마음 아팠지만, 그는 파벨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니는 펠라게야라는 여인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점차 세상의 문제를 깨닫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된 어머니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에 나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어떻게 힘을 합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랍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

옛날 옛적,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마을에서 놀았던 순간들,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곤 했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어머니가 주신 마들렌이라는 작은 과자를 먹었어요. 그 순간, 마르셀은 아주 오랜 옛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들렌의 맛과 향이 마르셀을 그가 어렸을 때의 순간들로 데려다 준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과 그때의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르셀은 자신이 잊고 있던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풍경들,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마르셀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어요. 마르셀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르셀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기억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르셀이 마들렌 과자를 먹으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이야기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준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옛날 옛적,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싱클레어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지만,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밝은 세계, 즉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어두운 세계, 즉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었죠. 싱클레어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어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학교에서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매우 똑똑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소년이었어요. 데미안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규칙과 일반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세상에는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는 싱클레어에게 "너는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야 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싱클레어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데미안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단순히 밝고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두 가지 세계가 모두 자신 안에 있으며, 그 둘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용기와 자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었고, 그를 통해 싱클레어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혼란을 보여줍니다. 싱클레어는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에 휘돌리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 보바리 부인 (그스타브 플로베르)

옛날 옛적, '엠마'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엠마는 시골 마을에서 '샤를 보바리'라는 의사와 결혼하고, 그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샤를은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지만, 엠마는 마음속에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엠마는 어릴 때부터 많은 로맨스 소설을 읽었어요. 그 소설 속 주인공들은 멋진 궁전에서 살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항상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엠마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화려하고 로맨틱한 것이길 바랐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시골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지루했으며, 샤를과의 결혼 생활도 그녀가 꿈꾸던 환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엠마는 마음속에서 더 화려하고 멋진 삶을 갈망했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며, 자신이 꿈꾸던 사랑과 모험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엠마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빚을 지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엠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많이 쓰고, 화려한 옷을 사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엠마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답니다.

마침내, 엠마는 큰 실수로 인해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이루지 못한 것에 너무나 큰 실망을 느꼈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보바리 부인은 엠마 보바리가 꿈꾸던 화려한 삶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엠마의 갈망이 결국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엠마는 자신이 로맨스 소설에서 읽었던 것처럼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욕심과 환상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 삼국지 (나관중)

옛날 옛적, 중국에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들은 위나라, 촉나라, 그리고 오나라였어요. 이 세 나라가 서로 싸우며 중국 땅을 차지하려고 했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촉나라의 세 명의 영웅이 모인 곳에서 시작돼요.

## 세 영웅의 결의

먼저, 촉나라의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비는 정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유비는 관우와 장비라는 두 용감한 장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형제가 되어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위해 싸우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자!"라고 결의했어요. 이 세 명의 형제는 앞으로 많은 전쟁에서 서로를 돕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된답니다.

## 위나라의 지혜로운 영웅, 조조

한편, 위나라에는 조조라는 지혜롭고 야심 많은 장군이 있었어요. 조조는 나라를 통일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조조는 전략과 전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는 종종 무서운 방식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적들도 많았어요.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려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 촉나라의 책사, 제갈공명

유비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략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제갈공명은 책을 많이 읽고, 전략과 전술에 매우 능했어요. 유비는 그를 설득해 자신을 돕게 했고, 그 후로

제갈공명은 촉나라의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갈공명은 유비와 함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 적벽대전

세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가장 큰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적벽대전이었어요. 이 전투는 촉나라와 오나라가 힘을 합쳐 위나라의 조조와 맞서 싸운 전투였어요. 조조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적벽에 도착했지만, 제갈공명과 오나라의 장수 주유가 함께 힘을 모아 조조를 무찌를 계획을 세웠어요. 이 전투에서 제갈공명은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불을 일으켜 조조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어요.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답니다.

## 영웅들의 최후

시간이 흐르면서 삼국의 영웅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유비는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관우와 장비도 각각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조조 역시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갈공명은 유비가 죽은 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는 촉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그의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어요.

삼국지는 용감한 영웅들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세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도 의리와 용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영웅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유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제갈공명은 정의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삼국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싸우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며,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 데카메론 (보카치오)

옛날 옛적,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 큰 전염병이 퍼졌어요. 사람들은 이 병을 피해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답니다. 그중에는 열 명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남자와 여자 다섯 명씩이었는데, 모두 병을 피해 숲 속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저택에 머물기만 하면 지루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각자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가 10일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개의 이야기가 모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지혜와 재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과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었죠. 모든 이야기는 친구들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서로 들려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 첫 번째 이야기: 재치 있는 지혜

하루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마을에 똑똑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치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느 날, 이 상인은 큰 위험에 처했지만, 그의 기발한 생각으로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마법

다른 날에는 한 친구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고, 결국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 세 번째 이야기: 행운을 잡는 법

어느 날, 한 친구는 운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늘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현명한 사람 덕분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

## 열 명 친구의 모험

이렇게 열 명의 친구들은 매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사랑,友情,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웠고, 함께 지내는 동안 더 친해졌답니다. 시간이 지나 병이 사라지자,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택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서로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데카메론은 열 명의 친구들이 위험을 피해 숲 속 저택에서 지내며 서로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 지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으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카메론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결국 더 강한 우정을 쌓았답니다.

##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옛날 옛적, 제인 에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제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인의 고모는 제인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도 제인에게 친절하지 않았답니다. 제인은 자주 혼자였고, 많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로우드 학교라는 기숙학교에 보내졌어요. 그곳은 엄격한 규칙이 많은 학교였지만, 제인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템플 선생님은 제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인은 학교를 졸업한 후, 가버필드 저택이라는 곳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로체스터 씨라는 남자와 그의 양딸 아델이 살고 있었어요. 제인은 아델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고, 로체스터 씨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처음에는 무뎌뎌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지만, 제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인과 로체스터 씨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제인에게 결혼을 청했고, 제인은 행복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제인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로체스터 씨에게는 비밀스러운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는 정신이 아프고, 저택의 꼭대기 방에 갇혀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인은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지키기 위해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제인은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리버스 가족은 제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인은 로체스터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 가버필드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저택은 큰 불로 인해 불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그 불에서 아내를 구하려다 다치게 되었고,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제인은 다시 로체스터 씨의 곁으로 돌아와 그를 돌봐주기로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결국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인 에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찾으며, 자존심과 사랑을 지키는 제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인이 자신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제인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며 사랑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 구토 (장 폴 사르트르)

옛날 옛적, '로칸탱'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며, 책을 쓰는 작가였어요. 로칸탱은 매일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가서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로칸탱은 자신이 사는 세상과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로칸탱이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하자, 로칸탱은 나무가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무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사람들, 물건들,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도 이상하고 낯설게 보였어요. 그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로칸탱은 이 이상한 감정을 '\*\*구토\*\*'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실제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혼란과 불편함이었어요.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그저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 감정 때문에 로칸탱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칸탱은 이 감정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세상이 원래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야.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로칸탱은 더 이상 세상을 불편하게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로칸탱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세상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로칸탱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토는 로칸탱이라는 남자가 세상과 자신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혼란과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도,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토는 우리에게 삶에서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줘요. 로칸탱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었답니다.

## 가시나무 새 (콜린 맥컬로우)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클리어리'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함께 큰 농장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그중에는 어린 소녀 메기가 있었는데, 메기는 가족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메기는 자라면서 랄프 신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랄프 신부는 친절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직자였어요. 메기와 랄프는 서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랄프 신부는 신을 섬기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기와 함께할 수 없었어요. 메기는 그런 상황이 너무 슬펐지만, 여전히 랄프 신부를 사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메기는 어른이 되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메기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메기의 사랑 이야기는 가시나무 새의 전설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는 전설이에요. 메기의 사랑도 마치 이 가시나무 새처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랑이었어요.

메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갔어요. 그녀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메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가시나무 새는 메기와 랄프 신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겪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더 강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가시나무 새는 사랑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삶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교훈을 줘요. 메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 실락원 (존 밀턴)

옛날 옛적,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천국에는 하느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천국에 있던 천사 중 하나였던 사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은 자신이 하느님처럼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느님에 반항하고, 천국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천국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은 지옥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답니다. 지옥은 천국과는 다르게 무섭고 끔찍한 곳이었어요. 사탄은 천국을 잃고 지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느님에 대한 반항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느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하느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아담과 이브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거라."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어요. 사탄은 뱀으로 변신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이브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느님처럼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왜 먹지 않니?"라고 속였어요. 이브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이브를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깨닫고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느님은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알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이제 아담과 이브는 천국 같은 에덴을 떠나,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했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를 도우며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실락원은 하느님에 대한 반항으로 인해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의 이야기와, 아담과 이브가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락원은 선택의 중요성과 유혹에 넘어가는 위험성을 보여주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을 잃었지만, 새로운 삶에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치)

옛날 옛적,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특별한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과 바다, 땅을 다스리며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과 영웅들의 모험과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 제우스, 신들의 왕

먼저,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신은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으로, 신들의 왕이었어요. 그는 크고 힘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모든 신들과 인간들에게 중요한 법칙을 정했어요. 제우스는 정의롭고 현명한 신이었지만, 가끔은 화를 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기도 했답니다.

### 아테나,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었고, 지혜와 전쟁의 전략을 담당하는 여신이었어요. 아테나는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힘보다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는 바다 속에 있는 멋진 궁전에서 살았고,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바다의 파도를 조절했어요. 포세이돈이 기분이 좋으면 바다는 잔잔했지만, 화가 나면 큰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불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세이돈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다에 가면 그를 존경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쌍둥이 신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아폴론은 태양과 음악, 그리고 예언의 신이었고,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의 여신이었어요. 아폴론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었어요. 아르테미스는 숲과 동물들을 사랑하며,

동물들을 보호하고 사냥을 즐겼답니다. 두 신은 서로 도우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었어요.

## 헤라클레스, 강력한 영웅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은 헤라클레스예요.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으로, 많은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했어요. 그중에는 열두 가지 과업이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강력한 사자를 물리치고, 거대한 괴물들을 쓰러뜨리는 등 힘과 용기를 발휘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힘과 용기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어요.

##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

오르페우스는 신화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그의 음악은 듣는 사람 모두를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웠어요.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에우리디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게 갔어요.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여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에우리디케가 지상에 도착하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에우리디케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과 영웅들의 흥미진진한 모험과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도전과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이 신화 속 인물들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알란 포우)

옛날 옛적, 플루토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플루토는 한 남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 남자는 처음에는 고양이를 아주 사랑했어요. 플루토는 주인과 함께 놀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화를 내고, 플루토에게 친절하지 않게 되었어요.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심지어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어요. 플루토는 이 변화가 슬펐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았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았고,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때 플루토가 다가오자,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고양이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날 이후로 플루토를 사랑하던 마음을 잃었고,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무서운 행동을 하고, 플루토를 집에서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남자는 자꾸만 플루토가 떠오르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플루토는 사라졌지만,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플루토가 남아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다른 검은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고양이는 마치 플루토처럼 생겼고, 남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그 고양이가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양이 역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과거의 잘못이 그 고양이에게 갚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었어요. 그는 플루토에게 했던 나쁜 행동을 후회하며, 마음속에서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들이 돌아와 그를 괴롭히게 되었답니다.



검은 고양이는 주인공이 자신이 사랑했던 고양이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느끼는 죄책감과 후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은 고양이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요.

##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포)

옛날 옛적, 로빈슨 크루소라는 모험을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로빈슨은 바다를 여행하며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꿈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행 도중에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부서지고, 로빈슨은 홀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다른 사람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매우 무섭고 외로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빈슨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무인도에서 생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답니다.

로빈슨은 배에서 떠내려온 물건들을 모아, 나무와 돌을 이용해 작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주변을 탐험했어요. 그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동물을 잡아 음식을 마련했어요. 로빈슨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점점 배워갔어요.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은 섬에 다른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발자국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섬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로빈슨은 두려웠지만, 곧 금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금요일은 다른 부족에서 도망쳐 온 사람으로, 로빈슨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섬에서 생활했어요. 로빈슨은 금요일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금요일은 로빈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로빈슨과 금요일은 우연히 섬 근처로 온 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배는 로빈슨이 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로빈슨은 오랜 시간 무인도에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로빈슨은 금요일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모험을 떠난 로빈슨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요. 또한, 친구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 파우스트 (괴테)

옛날 옛적, 파우스트라는 똑똑한 학자가 있었어요. 파우스트는 많은 책을 읽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더 큰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와 만나게 되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쾌락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너의 영혼을 나에게 줘야 해." 파우스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멋진 모험을 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우스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으로 인해 많은 경험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한,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졌고, 자신이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에 큰 괴로움을 느꼈어요.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식과 쾌락만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선한 삶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파우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를 구원하러 내려왔답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한 남자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한 성공이나 즐거움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사랑, 선행, 그리고 용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 모비딕 (허먼 멜빌)

옛날 옛적, 이슈메일이라는 젊은 청년이 바다를 여행하고 싶어졌어요. 그는 모험을 찾아 페쿼드호라는 고래잡이 배에 승선하게 되었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에이해브 선장이었어요. 에이해브 선장은 용감하지만 매우 신비롭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하얀 고래를 잡는 것이었어요.

모비딕은 보통 고래가 아니었어요. 그 고래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해서, 많은 고래잡이들이 그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게다가 에이해브 선장은 과거에 모비딕을 잡으려다가 그 고래 때문에 다리를 잃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에이해브 선장은 오로지 모비딕을 잡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모비딕을 찾아 바다를 헤매며 온 힘을 다했어요.

이슈메일과 다른 선원들은 에이해브 선장의 명령을 따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바다는 매우 위험하고, 고래를 사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이해브 선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도 모비딕을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답니다.

마침내, 모비딕이 나타났어요. 그 고래는 거대하고, 바다 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에이해브와 선원들은 모비딕을 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지만, 모비딕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선원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었고, 결국 배도 망가져 가기 시작했어요. 에이해브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비딕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결국 모비딕은 사라졌고, 에이해브 선장과 배는 모두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이슈메일은 유일하게 살아남아, 바다 위에 떠 있던 나무 조각을 붙잡고 살아남았답니다. 그는 이 모험을 통해 바다의 위대함과, 사람의 욕망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모비딕은 한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거대한 하얀 고래 모비딕을 잡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복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이해브 선장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비딕을 잡으려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선원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비딕은 자연의 위대함과 위험성을 알게 해 주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옛날 옛적, 걸리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걸리버는 바다를 여행하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험가였어요. 어느 날, 걸리버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걸리버는 가까스로 헤엄쳐 릴리퍼트라는 신비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 1. 작은 사람들이 사는 릴리퍼트

걸리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움직일 수 없게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그를 묶어 놓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릴리퍼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걸리버를 거대한 거인처럼 여겼어요. 처음에는 걸리버를 두려워했지만, 걸리버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자, 릴리퍼트 사람들은 그를 친구로 받아들였답니다.

릴리퍼트 사람들은 걸리버의 도움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릴리퍼트 왕국에서는 작은 일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왕과 신하들이 달걀을 어떻게 깰지를 두고 싸움을 벌였던 것이에요! 걸리버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 2. 거인들의 땅, 브로브딩나그

걸리버는 또다시 바다로 떠났고, 이번에는 브로브딩나그라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였어요. 브로브딩나그에서는 걸리버가 아주 작은 존재가 되었고, 그 나라의 거인들이 걸리버를 작은 인형처럼 대했어요! 거인들은 걸리버를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걸리버는 그들의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인들의 왕은 걸리버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걸리버가 사는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걸리버는 그곳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약하다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답니다.

### 3.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



또다시 여행을 떠난 걸리버는 이번에 라퓨타라는 하늘을 나는 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퓨타의 사람들은 과학과 수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복잡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걸리버는 그들이 너무 이론에만 집중하고, 실제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와 상식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 4. 말들이 지배하는 후이능국

마지막으로, 걸리버는 후이능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는 말들이 가장 지혜롭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후이능이라는 말들은 아주 똑똑하고, 친절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었어요. 반면, 이 나라에는 야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거칠고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걸리버는 후이능들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달리, 후이능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후이능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걸리버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는 모험을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각각의 나라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지나친 욕심과 싸움보다는 지혜와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걸리버는 여러 모험을 통해 자신이 사는 세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모험 속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답니다.

## 대지 (필백)

옛날 옛적, 왕룽이라는 한 농부가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왕룽은 아주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며 땅을 사랑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농사를 짓고, 자신의 땅에서 자란 곡식들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왕룽은 언제나 땅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땅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왕룽은 어느 날, 오란이라는 이름의 착하고 성실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오란은 왕룽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려 나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열심히 일했고, 점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조금씩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룽과 오란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가뭄이 들면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왕룽의 가족은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왕룽과 그의 가족은 도시로 떠나야만 했어요. 도시에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왕룽은 땅을 그리워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짓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결국 왕룽은 도시 생활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왕룽은 고향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며 다시 농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땅에서 나는 풍요로운 곡식들로 가족을 부양하며, 점점 더 많은 땅을 사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농부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룽의 마음속에는 항상 땅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있었어요. 그는 가족이 잘살게 되었지만,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땅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가르쳤답니다.

대지는 왕룡이라는 농부가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땅이 얼마나 소중한고, 땅을 가꾸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땅을 통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왕룡의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 근면,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테스 (토머스 하디)

옛날 옛적, 테스라는 아름답고 순수한 소녀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테스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테스는 밝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스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가문이 예전에 부유한 귀족 집안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가족은, 테스를 그 부유한 친척을 찾아보내기로 했어요. 테스가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랐던 거죠.

테스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벗가라는 귀족 집안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테스는 알렉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알렉은 테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알렉은 테스를 속여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테스는 그 일이 너무나 슬펐고, 다시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테스는 가족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테스는 새로운 곳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엔젤 클레어라는 착하고 진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엔젤은 테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테스도 엔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엔젤은 테스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했지만, 테스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녀는 엔젤에게 과거에 겪은 슬픈 일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결국, 테스는 결혼 후에 엔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엔젤은 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테스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결국 테스를 떠나 멀리 가버렸어요. 테스는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여전히 엔젤을 사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테스는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알렉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알렉은 테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테스는 알렉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때 엔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엔젤은 테스를 용서하고, 그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테스는,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녀는 알렉에게 큰 복수를 하고, 그 결과로 인해 자신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결국, 테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테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녀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다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사회 속에서 겪는 불행과,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고통스러운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요.

테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고난과 불의,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테스의 이야기는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 파리대왕 (윌리엄 제랄드 골딩)

옛날 옛적, 몇 명의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이 불어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은 없고, 오직 소년들만 그 섬에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 소년들은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이 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랠프라는 소년을 리더로 뽑았어요. 랠프는 모두가 협력해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친구 피기도 랠프를 도와주며, 규칙을 만들고 섬에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답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 모두 협력하고 규칙을 따르며 생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들 중 일부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싫어졌어요. 그중 잭이라는 소년은 사냥에만 집중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잭은 친구들을 모아 자신의 무리를 만들었고, 이제는 랠프와 피기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잭의 무리는 점점 더 야생적으로 변해갔고, 그들은 규칙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잭과 그의 무리는 사냥을 하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갔어요. 그들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동물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고, 섬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 행동했어요. 무인도는 점점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년들은 무서운 괴물이 섬에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괴물을 **\*\*파리대왕\*\***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과 폭력성이 만들어낸 상상이었답니다.

잭의 무리는 점점 더 잔인해졌고, 결국 그들은 큰 싸움을 벌였어요. 랠프와 피기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잭의 무리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결국 큰 비극이 일어나고, 섬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소년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른들이 그 섬을 발견하고 소년들을 구출하게 되었어요. 소년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처음 섬에 왔을 때의 순수함을 되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섬에서 겪은 일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답니다.

파리대왕은 몇 명의 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려 하다가, 규칙과 질서를 잃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두려움, 욕망, 그리고 폭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리대왕은 우리가 사회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규칙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 고요한 돈강 (미하일 솔로호프)

옛날 옛적, 러시아의 돈강 근처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코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말을 타고 강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들 중에 그레고리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레고리는 강한 전사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돈강 근처에서 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레고리에게는 나탈리아라는 착한 아내가 있었지만, 그레고리는 다른 여자인 아크시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레고리는 마음속에서 큰 혼란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크시냐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그레고리는 점점 더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코삭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레고리도 싸움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레고리는 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큰 슬픔을 느꼈어요. 전쟁은 그레고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레고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어요. 러시아는 이제 혁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레고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혁명과 전쟁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받았어요.

그레고리는 여러 번 전쟁터로 나갔고, 전우들과 함께 싸우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전쟁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레고리는 가족과 나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혼란을 느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고민했답니다.

마지막에 그레고리는 돈강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고 싶었지만, 전쟁과 혁명은 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돈강의 고요한 흐름을 바라보았어요. 그레고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갈등과 슬픔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요한 돈강은 전쟁과 혁명 속에서 한 남자가 겪는 갈등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려냅니다.

고요한 돈강은 전쟁과 혁명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이야기에요.

## 말테의 수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옛날 옛적, 말테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테는 매우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파리라는 큰 도시에 살며,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파리의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말테는 그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답니다.

말테는 파리에서의 생활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이 일기 속에서 말테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테는 파리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모두 혼자만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테는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보며, 인간이 왜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말테는 동시에 사랑과 아름다움도 느꼈어요. 그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과, 자연 속에서 느꼈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말테는 그 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비록 세상이 힘들고 복잡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말테는 자신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희망을 찾아야 해.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말테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도,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말테의 수기는 한 청년이 자신의 일상과 감정 속에서 삶과 죽음, 고독과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의 복잡함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사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말테의 수기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 세 (파스칼)

옛날 옛적, 파스칼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항상 세상과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자주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세상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파스칼은 인간이란 참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인간이 우주의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작은 먼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이 세상 속에서 아주 작고 약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파스칼은 동시에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도 생각했어요. 인간은 세상에서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파스칼은 말했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고민하고, 세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인간이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강해질 수 있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외로움도, 결국 생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 파스칼은 이렇게 인간의 모순된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우리 모두가 그 모순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인간이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신앙이나 철학 같은 더 큰 무언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인간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는 파스칼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쓴 책이에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에서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찾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벡)

옛날 옛적, 조드라는 가족이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농부였고,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큰 가뭄이 들어 땅이 말라버렸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드 가족은 집과 땅을 잃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조드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캘리포니아라는 땅에 가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드 가족은 오래된 트럭을 타고 멀고 먼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은 길고 힘들었어요. 길을 가는 동안 조드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종종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른 많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면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졌어요.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 조드 가족은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은 많지 않았고, 일을 할 때 받는 돈도 너무 적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가족은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드 가족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마라는 가족의 어머니는 늘 가족을 지켜주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결국 나아질 거야"라고 말하며 가족을 격려했답니다.

그러나 조드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받을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조드 가족이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가난과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 불의와 불공평에 맞서 싸우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노의 포도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옛날 옛적, 토마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의사였어요. 토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혼란과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즉,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토마스는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테레사라는 착하고 순수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테레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 테레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혼란을 느꼈어요.

테레사는 토마스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토마스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토마스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테레사는 종종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녀는 사랑의 무게를 버티기 힘들어했지만, 토마스를 떠나지 못했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책임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토마스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테레사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 사비나는 토마스처럼 자유롭게 가벼운 삶을 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반면 프란츠는 사랑을 추구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찾으려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가벼움과 무거움의 갈등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삶이 너무 가벼워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또 때로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 버티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토마스 와 테레사는 이런 고민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자유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벼운 선택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에서의 선택은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 인형의 집 (입센)

옛날 옛적, 노라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상냥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노라는 남편 토르발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노라는 항상 남편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안을 돌보는 착한 아내였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노라의 마음속에는 남모르게 불안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토르발트는 노라를 사랑했지만, 때때로 노라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노라는 항상 남편과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아내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집 안에서만 살고, 남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노라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비밀은 바로, 남편을 돕기 위해 몰래 돈을 빌린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라는 이 비밀을 숨겨야만 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돕기 위해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일이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드러나자, 토르발트는 매우 화를 냈고, 노라를 나무랐어요. 그는 노라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노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노라는 자신이 항상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생각과 꿈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노라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해." 노라는 더 이상 자신이 남편과 가족의 인형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나의 인생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노라는 남편과 집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

인형의 집은 한 여성이 남편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역할 속에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노라는 처음에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선택과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라는 자신의 행복과 삶을 위해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집을 떠났고, 그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인형의 집은 자유와 자아 찾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옛날 옛적, 시마무라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도시에 살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끔씩 설국이라는 눈이 많이 내리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그곳은 산과 눈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설국에서 시마무라는 고마코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마코는 그 마을에서 기녀(게이샤)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마무라는 고마코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와의 특별한 인연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마코도 시마무라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어딘가 모르게 멀리 느껴졌어요. 마치 설국의 차가운 눈처럼, 그들의 사랑은 다가가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마무라는 고마코와 지내면서 그 마을과 눈 덮인 풍경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시마무라는 계속해서 마을과 도시를 오가며 고마코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시마무라는 설국의 차가운 자연과 고마코와의 따뜻한 관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답니다. 설국은 시마무라에게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곳의 차가움은 그가 고마코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었어요. 그는 고마코에게 다가가면서도, 그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어요.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사랑했지만, 그 역시 완전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녀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그 차가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답니다.

결국, 시마무라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어요. 설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시마무라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결국 그는 고마코와 함께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설국은 시마무라라는 남자가 눈이 많이 내리는 작은 마을에서 만난 고마코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이 얼마나 쉽게 다가오고 또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국은 사랑이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그 감정이 마치 눈처럼 덧없고 사라지기 쉬운 것임을 이야기해줍니다.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좁은 문 ( 앙드레 지드)

옛날 옛적, 제롬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제롬은 어릴 때부터 사촌 알리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고, 마음 깊이 사랑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리사는 자신이 제롬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할 바에는 아예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알리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희생과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며, 점점 더 스스로를 억누르게 되었답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깊이 사랑했지만, 알리사는 제롬과의 사랑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롬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좁은 문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더 순수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의 선택에 큰 슬픔을 느꼈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알리사는 점점 더 제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알리사는 자신의 사랑이 세속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더 높은 영적인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알리사는 자신을 희생하며 제롬을 떠났지만, 제롬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는 알리사를 잊을 수 없었고, 그녀의 결정이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느꼈어요. 하지만 결국, 제롬은 알리사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좁은 문은 제롬과 알리사의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갈등과 자기희생이 그들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할 바에는 희생을 선택했고, 제롬은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보여주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진정한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알리사는 사랑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롬과의 진실한 사랑을 잃게 되었어요.

## 막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옛날 옛적, 핼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핼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착한 소년이었지만,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꿈꾸곤 했어요. 어느 날, 핼은 한 도망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도망자는 핼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고, 핼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핼은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핼의 인생을 바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핼은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핼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 유산 덕분에 그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런던으로 가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간 핼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신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핼은 점점 돈과 부가 그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원래 사랑했던 것들을 잊고, 부유한 삶만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핼은 어릴 때부터 에스텔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했어요. 에스텔라는 부유한 미스 해비섬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는데, 그녀는 늘 핼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핼은 신사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에스텔라가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믿었지만, 에스텔라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핼은 그 사실에 마음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핼은 자신이 받았던 막대한 유산이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 도와주었던 도망자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도망자는 핼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핼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부와 신분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핍은 이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돈과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핍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켜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은 핍이라는 소년이 갑자기 큰 유산을 받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부와 신분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핍은 처음에는 돈과  
신분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과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막대한 유산은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진심과 정직한 마음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옛날 옛적, 아주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세상은 과학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기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일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규칙을 잘 따르고, 항상 웃으며 살고 있었어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슬프거나 화날 일이 생기면, 특별한 약을 먹고 금방 기분이 나아졌어요. 이 세상에서는 감정을 깊이 느끼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밝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 속에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버나드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버나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항상 똑같은 생활과, 사람들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버나드는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걸까?"라고 자주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했지만, 버나드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이곳은 멋진 신세계와는 아주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곳에는 존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존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은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정해진 역할이나 감정 억제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버나드는 존을 멋진 신세계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존은 멋진 신세계가 아주 특별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이곳이 진정한 자유와 개인적인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기쁘고 슬픈 감정 대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행복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존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이곳의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존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차갑고 비인간적이라고 느꼈어요.

결국, 존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진정한 자유와 사람다움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미래의 기술과 규칙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감정을 잃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규칙적이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것들, 즉 자유롭게 생각하는 힘과 자신의 감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멋진 신세계는 행복이 단순히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살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춘희 (알렉산더 뒤마 피스)

옛날 옛적, 마르그리트 고티에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춘희라고 불렀어요. 춘희는 파리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춘희는 여러 부유한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춘희는 아르망 뒤발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르망은 춘희와는 다르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춘희를 단순히 외모나 화려한 생활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르망은 춘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며, 그녀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어요.

춘희도 아르망을 사랑하게 되었고, 둘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춘희는 아르망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이제는 화려한 생활보다 진정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춘희는 아르망과 함께 파리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가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르망의 아버지는 춘희가 과거에 부유한 남자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가 아르망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춘희에게 아르망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춘희는 아르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어요.

춘희는 아르망이 자신을 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고 아르망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르망은 춘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큰 슬픔에 빠졌답니다. 춘희 역시 아르망을 떠나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춘희는 점점 병이 들어 몸이 약해졌어요. 그녀는 아르망을 잊지 못하고, 그와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외로이 지냈답니다. 결국, 춘희는 아르망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르망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춘희가 그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춘희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닫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춘희는 화려한 삶을 살던 한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춘희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희생을 선택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춘희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